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2019. 3.13(수)~14(목), Intercontinental Seoul COEX
- Reception 30F Jupiter / 본회의 B1F Vivace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 가 자 : 총 69명, 명단 별첨
- 한국측 : 오석송 체어맨(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39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30명
4. 회의주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
- 세션1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 세션2 :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
5. 회의 개최결과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 의제인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역할 수행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을 설계, 실현방안을 논의
- 세계경제둔화, 한일관계 악화, 동북아정세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

□ 주요 제언내용

① 한계상황에 임박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언

- 지일·지한 리더의 역할, 새로운 패러다임(초광역경제권, 벤처교류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긍정의 기억 홍보(조선통신사 유네스코등재)

② 서울재팬클럽의 활동과 과제 해결을 통한 한국사회 공헌 제언

- 회원수·학생수 감소 대응, 양국 경제활동·문화교류 활성화 환경정비 (투자·사업활동 현안 개선), 한국정부·기업과의 의견교환 지속

③ 한국청년인재의 활용을 통한 한일경제협력 제언

- 일본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청년인재의 활용

④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일 간 관계구축의 과제 해결을 제언

- 여론조사결과 상대국에 대한 피로감 확대로 정치·외교의 안정이 중요, 한일 공통과제의 제휴(비방자제·관리, 네트워크 재건, 원원관계 확인)
- 민간·지역교류 지속, 청소년교류 강화, 청년인재활용, 공통과제협력, 하나의 여행지로서 관광객 유치협력

6. 개회인사 요지

■ 오석송 (吳碩松) 한국측 চে어맨

-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난 50년 동안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 무역,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추구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함께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이러한 우려와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한일 간의 정치적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은 지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영역과 경제, 문화, 안보 영역을 분리하여 상생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매년 양국 경제인이 한데 모여 공동 번영을 모색하며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는 등, 경제협력의 틀로서 성공적인 양국 민간 교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함

□ 아소 유타카 (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 지금 한일관계는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간 인적왕래가 작년 처음으로 천만명을 돌파하고 취업 비자 발급자수도 2만명을 넘어서는 등, **혼란스러운 양국의 정치상황과는 달리 인적교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한일·일한 양국 협회에서는 올 해도 **경제·인재·문화**를 3대 축으로 고교생캠프,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의견과 건설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기를 바램

■ 이수철 (李洙喆) 코디네이터

-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0년간 이어져 온 역사와 배경 설명)
- 일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감정은 한국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함
- 정치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양국 경제인들은 중심을 잡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회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코디네이터

- 한일의 정치관계는 작년에 평창올림픽에 약간 개선될 조짐이 보였으나 최근 1년만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섰음
-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일관계는 냉각되고 있으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함. 양국의 선배들께서 꾸준히 구축해 오신 관계를 통해 이러한 좋은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함

■ 서석송 (徐錫崇)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8년 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슬로바키아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에서 제일 먼저 나서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선명함.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동병상련의 따뜻한 마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
- **한일은 서로 이사를 못가는 지형적인 관계이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다면 서로 더 이해하고 최대한 협력하는 것만이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임**
- 양국은 지금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고 관계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때 일수록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한일관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함**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오석송 한국측 신임 চে어맨의 취임을 환영함
- (한일 양국 협회·재단의 중점사업 설명)
- 일본의 경제4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한국의 징용공문제 판결 직후에, “한일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함. 이는 한일 양국의 선배분들께서 구축해 온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내용임
- 양국 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본래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7. 주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① 제1세션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1. 한일관계 인프라(2018년도)
 - 양국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인적·교역·문화 등 분야에서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교류증가 현상을 보임. **비교적 양국간 인프라는 견고**
 - ex.한일 총 상호방문자수 1,043만명(방일한국인 745만명, 방한일본인 295만명)
한국의 대일교역 \$851.9억, 2017년도부터 제3차 한류 (치즈닭갈비, BTS 등)
2. 최근 한일갈등의 원인 분석
 - 극단적 자국우선주의(뉴노멀), 상호비난, 정상회담의 부재, 상호불신
 - **한일갈등의 지속 : 자국우선주의 이익 > 양국간 협력 이익**
3. Dead Cross 임박
 - 국민감정의 악화 : 16개국 평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80.3%, 일본 20.2%
 - **국민감정의 악화는 경제감정의 악화로 연결**
4.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의 모색
 - 양국 지일·지한 리더들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 한일 지역간 교류 활성화(국제특구 구상)
 - 한일 양국간 '긍정의 기억' 발굴과 홍보 ex.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공동등재(2017)

□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사장 「서울재팬클럽의 활동과 과제」

1. 2018년도 서울재팬클럽 활동보고
 - 문화 : 한일 청년음악가 교류 콘서트, 일본어 학력 경시대회, 취업페어 등
 - 사회공헌 : 기부활동, 복지봉사 참가, 강연
 - 일본인학교 운영, 한일 제3국 경제연계미션(베트남) 참가,
 - 기업 현장인재 육성사업(인턴실습 프로그램)
2. 향후의 과제
 - 서울재팬클럽 회원 및 일본인학교 학생수 감소 : 증가흐름으로의 회복
 - 서울재팬클럽 멤버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이해와 지원 기대

② 1세션 질의응답 내용

○ 도레이첨단소재의 한국투자 성공비결 소개

- 한국에서 **한국인이 경영**, 근로자와 **경영정보 공유**, 파트너 회사와의 **우호관계 유지**가 도레이가 한국에서 성공한 비결임
- 서로 이해하고 상대의견 경청 및 양보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

○ 한국미쓰비시상사는 포스코와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임

- 한일관계 악화로 부정적으로 전환, 정치·경제 투트랙 불가한 상황임
- 새로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음

○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일·지한 지식인 역할 중요**

- 한일은 서로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지금의 양국 관계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으며, 한일 관계도 이와 같음

○ 양국 지식인들 모두 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TOP교류도** 계획적으로 제대로 해야 함

- 새로운 지식인이 많이 나와야 하며, 부산-큐슈 해저터널 건설 등 **함께 양국 관계를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일관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대화 필요, **대화 계기 마련이 중요**

③ 제2세션 :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

■ 서석송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Selecting Talented Koreans for Japanese Economy」

1. 한일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
 - 지정학적으로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宿命적 이웃인 일본이기에, 더욱 이해하고, 선의로 경쟁하며, 최대한 협력함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
 - “**苦集滅道**”의 수순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해야 함
2. **한일관계 해법**
 - 한일관계는 역사, 환경, 기타상황 등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상식으로 간주되어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
 -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고, 바로 해결 가능한 것부터** 생각하여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함(비즈니스의 기본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
3. 한일간 인적교류 관련
 - 일본에서는 향후 IT 분야와 관광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적다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에서 넘치는 구직자와 일본에서 부족한 일손을 매칭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협력
4. 그러나, **협력도 한일 양국 간의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일간 관계구축의 과제」

1. 한일관계의 현주소
 - 2010년에는 일본국민의 4%, 한국국민의 7%만이 향후의 한일관계가 부정적
 - **건전하고 안정적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함
2. 한일관계의 구조적 진단
 - 한일관계는 역사 및 영토문제·한국의 중국경사론 등으로 인하여 서로 무시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상대방이 자국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하며, 한일 양국은 **경제·외교·안보면에서 상호 중요한 존재**임을 생각해야 함
- **한일관계 개선에는 양국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

3. **상생과 협력의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 역사문제 해결방안 : 위안부합의 조기이행, 공동역사교재 편찬 등
- 동아시아지역질서 구축협력 : 和中協日(한국), 탈아입구적 자세 탈피(일본)
- 상설민간협의체(1.5.트랙) 설치 검토, 한일FTA체결 등
- 이웃국가는 이사가 불가능

4. 2세션 질의응답 내용

- 한일은 언어가 유사하나 **마음의 표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함
 - 유감·사죄 등 언어적 이해의 차이(뉘앙스) 연구 필요
- **한일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점을** 지식인들이 여러 회의 등에서 발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관계 사례를 찾아 곳곳에 홍보
- 고교생 교류 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함
 - 유럽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1~2학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등
- 한일 대기업간의 상호방문 및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간의 교류 기회는 부족한** 실정임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간의 연결 등이 필요함
-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늘려야 함
 - 취업정보 이외에도 회사정보 부족, 낮은 월급 수준, 장래성이 담긴 내용 또한 한국 청년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⑤ 전체토론 내용

-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양국 언론의 왜곡·과장된 보도를 꼽을 수 있음
 - 한일 양국 관계자 모두 향후의 파장과 후유증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언론 내용은 전체 중의 일부라는 것을 경제인들이 호소해 나간다면 양국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에서 부임해 온 주재원들은 한국인이 생각하는만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한국측) 양국 국민은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다를 뿐, **결단코 서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님**
 - 주한일본기업 주재원들께서 한국에 부임하기 전,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부임해 온다면 선입견 없이 한국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의 이직률이 30%라면 일본인들은 놀라워하지만, 삼성 및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이직률 또한 30%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님
- (한국측) 아무리 작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큰 효과를 불러오는 연결고리가 될 것**
 -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중요**하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간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 확대하기를 희망
 - 지금의 혹독한 양국 관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양국 협회·재단이 여러 대안을 모색해 나아갈 예정
- 일본에서 부임해 온 주재원들은 한국인이 생각하는만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

8. 총괄 마무리

- 한일 양국은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실한 관계를 구축해서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것임
 - 한일 양국은 이사를 갈 수 없고, 양국간 산업교류는 매우 중요함
 - 제3국 공동진출 등 100개 이상 존재하는 한일기업간 **협업 내용을 더욱 널리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이익보다는 양국 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큼
 - 한일 간의 각계 파이프라인의 약화와 상호 국가 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변화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양국 **win-win관계 회복을 통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신뢰 조성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간 존경의 자세**로 서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번 회의의 논의내용은 하반기에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참 부]

1.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1부.
2.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각 1부.
3.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언론 보도자료 1부.
4.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케이트 결과 1부.
5.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사진자료) 1부. 끝.

첨부 1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3.13 (수)	18:30~20:00	리셉션 (INTERCONTINENTAL SEOUL COEX 30F JUPITER)
3.14 (목)	08:30~09:00 (30)	※ 접수 (INTERCONTINENTAL SEOUL COEX B1 VIVACE)
	09:00~09:05 (05)	개회 (조덕묘 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
	09:05~09:25 (20)	개회인사
	(10)	▶ 오 석 송 한국측 চে어맨
	(10)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09:25~10:05 (40)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10)	▶ 이 수 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10)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일본측 코디네이터
	(10)	▶ 서 석 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10)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0:05~11:20 (75)	세션(Ⅰ)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20)	○ 한국측 발표 :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20)	○ 일본측 발표 :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 겸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사장 ▶ 서울재팬클럽의 활동과 과제
	(35)	○ 1세션 질의응답
	11:30~12:30 (60)	오찬 (도시락 * 회의장내)
	12:40~13:55 (75)	세션(Ⅱ) :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
	(20)	○ 한국측 발표 : 서석송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 Selecting Talented Koreans for Japanese Economy
	(20)	○ 일본측 발표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일 간 관계구축의 과제
	(35)	○ 2세션 질의응답
	13:55~14:15 (20)	커피브레이크
	14:15~15:10 (65)	전체토론
	15:10~15:30 (20)	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চে어맨 총괄 양사무국인사 / 폐회

첨부 2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1 한국측 참가자 : 39명

姓名 가나다 順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社)韓國貿易協會 META-BIOMED Co., Ltd	副 會 長 會 長	吳 碩 松 OH Suk Song	Chairman
2	(株)GH Holdings (社)韓日經濟協會	會 長 常任理事	李 洙 喆 LEE Soo Chul	Coordinator
3	(社)韓日經濟協會	副 會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主催機關 代表 2Session 發表
4	東西大學校	總 長	張 濟 國 CHANG Je Kuk	1Session 發表
5	Toray尖端素材(株)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會 長	李 泳 官 LEE Young Kwan	企業·學界 等
6	共生國際特許情報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代表理事	朴 南 淑 PARK Nam Sook	
7	(株)東海STF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副 會 長	黃 昊 均 HWANG Ho Kyoon	
8	GMK KOREA Co.,Ltd.	會 長	高 東 郁 KO Dong Uk	
9	(株)Hikari情報	會 長	奇 秉 泰 KEE Byeong Tae	
10	産業研究院	研 究 員	金 洋 膨 KIM Yang Paeng	
11	Super Light Case Co., Ltd	代表理事	金 玉 卿 KIM Ok Kyung	
13	(株)建一産電	代表理事	金 仁 碩 KIM In Seok	
12	GMK KOREA Co.,Ltd.	代表理事	明 池 民 MYUNG Ji Min	
14	柳韓大學校	教 授	梁 在 英 YANG Jae Young	
15	慶熙Cyber大學校	教 授	吳 泰 憲 OH Tae Heon	
16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 長	劉 崇 勳 YOO Sung Hun	
17	CAPITAL ONE	副 社 長	李 世 宗 LEE Sae Jong	
18	World Entertainment	代表理事	李 榮 澤 James Lee	
19	國會事務處	弘 報 企 劃 官	李 春 奎 LEE Choon Gyu	

20	淑明女子大學校	教 授	李 亨 五 LEE Hyung Oh	企業・學界 等
21	GMK KOREA Co.,Ltd.	顧 問	林 東 吉 LIM Dong Gil	
22	建國大學校	教 授	任 千 錫 IM Chon Sok	
23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 長	張 震 旭 JANG Jin Wook	
24	SLKKUKBO Co., Ltd	副 社 長	鄭 貴 出 CHUNG Kwi Chool	
25	(株)KJBC	代表理事	鄭 相 坤 CHUNG Sang Kon	
26	金 & 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鄭 竣 明 CHUNG June Myong	
27	Super Light Case Co., Ltd	監 事	河 貞 曦 HA Jung Hee	
28	TAPE Engineering	代表理事	洪 潤 根 HONG Yun Gun	
29	(株)東海STF	副 會 長	黃 昊 均 HWANG Ho Kyoon	
30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先 任 研 究 員	深 堀 すずか FUKAHORI Suzuka	
31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 務 官	裴 修 潁 BAE Su Reen	Observer
32	(社)韓国貿易協会 国際協力室	課 長	金 旻 性 KIM Min Sung	事務局
33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趙 德 卯 CHO Duck Myo	
34	(社)韓日經濟協會	部 長	金 正 鎬 KIM Jung Ho	
35	(社)韓日經濟協會	課 長	徐 光 賢 SUH Kwang Hyun	
36	(社)韓日經濟協會	代 理	李 裕 卿 LEE You Kyong	
37	(社)韓日經濟協會	研 究 員	崔 智 暎 CHOI Ji Young	
38	韓日同時通譯士		金 惠 媛 KIM Hae Won	通譯
39	韓日同時通譯士		李 定 南 LEE Jeong Nam	

② 일본측 참가자 : 30명

일본측 기재순서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一社)日韓經濟協會 (株)麻生Cement (一社)九州經濟連合會	副 會 長 會 長 會 長	麻 生 泰 Aso Yutaka	Chairman
2	NRI社会情報System(株)	上 席 Consultant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Coordinator
3	韓國三井物産(株) Seoul Japan Club	社 長 理 事 長	森 山 朋 之 Moriyama Tomoyuki	1Session 發表
4	静岡県立大学 国際関係学部	教 授	小 針 進 Kohari Susumu	2Session 發表
5	韓國三井物産(株)	部 長	手 島 純 子 Teshima Junko	企業・團體 等
6	韓國住友商事(株)	理 事	全 裕 善 Chun Yoo-sun	
7	韓國丸紅(株)	社 長	立 川 健 介 Tatsukawa Kensuke	
8	韓國三菱商事(株) Seoul Japan Club	社 長 前理事長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9	韓國伊藤忠(株)	社 長	大 堀 英 生 Ohori Hideo	
10	日本貿易振興機構 Seoul事務所	所 長	保 科 聡 宏 Hoshina Toshihiro	
11	日本貿易振興機構 Seoul事務所	副 所 長	末 永 敏 Suenaga Satoshi	
12	日本商工会議所 Seoul事務所	所 長	関 口 正 俊 Sekiguchi Masatoshi	
13	(株)Mizuho銀行 Seoul支店	支 店 長	加 藤 勝 彦 Kato Masahiko	
14	(株)三井住友銀行 Seoul支店	支 店 長	高 橋 克 周 Takahashi Katsunori	
15	(株)三菱UFJ銀行 Seoul支店	課長代理	有 賀 光 彦 Aruga Mitsuhiko	
16	韓國三菱商事(株)	課長代理	金 누 리 Kim Nuri	
17	Kelly Service Japan	顧 問	柳 炫 朱 Yu Hyunjoo	observer
18	韓日親善協會	副 會 長	楊 仁 集 Yang Injip	
19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公 使	西 永 知 史 Nishinaga Tomofumi	observer
20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參 事 官	有 馬 伸 明 Arima Nobuaki	
21	(一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主催機關 代表
22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事務局
23	(一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前 田 一 郎 Maeda Ichiro	

24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千吉良 泰 三 Chigira Taizo	事務局
25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木 村 慎一郎 Kimura Shinichiro	
26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 部 長	須 藤 俊 Sudo Shun	
27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Center	Center長	杉 原 景 Sugihara Kei	
28	(一社)日韓経済協会 青少年交流Center	Center長	金 侑 貞 Kim Yu Jung	
29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伊 藤 美千代 Ito Michiyo	
30	(株)日刊工業新聞社	社 員	河 原 啓 太 Kawahara Keita	



무역협회,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주제로 토론 진행



▲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무역협회가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측 체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한일 무역업계, 양국 관계 악화 속 '경제협력' 의지 재확인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악화 여파로 한일경제인회의가 취소되는 등 민간교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양국 무역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열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계 간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한일관계가 최근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측 चे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포토]韓日 관계 경색 속 양국 경제인 회동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 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 측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양국 기업인은 논의 사안들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무협,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측 চে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bbaromy4@asiatoday.co.kr

무협,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관계 새 도약하자"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가졌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 측 চে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명희기자 noprnt@etnews.com

무협, '제 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열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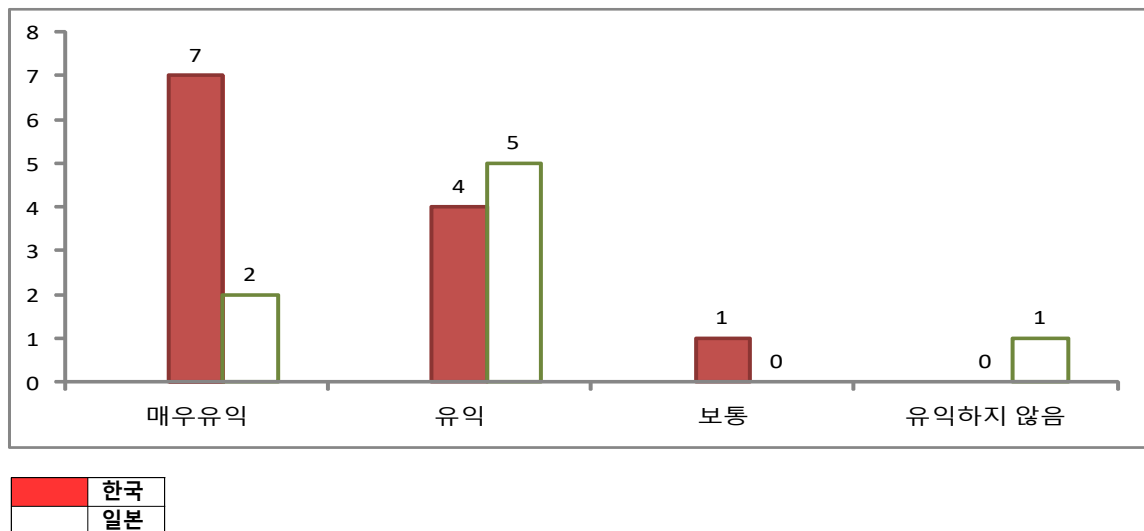
한국측 체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채 기자

첨부 4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조사 결과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 결과

1. 회의 내용이 유익하였습니까?



2.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한국측)

-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향후 방향 제시
-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항과, 한일간 이해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됨
- 솔직한 논의와 상호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유익하였으며, 정치와 경제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 민간교류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과 방식에 대해서 이해
- 한일 간 정보교류의 문제점 파악
- 일본에 대한 정보 입수에 도움
- 중단 없는 회의로 지속발전하고 있음
-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높음
- 한일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과 이에 대한 성찰의 기회
- 한일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음(2)
- 당면 문제를 솔직히 표현하고 논의했다고 생각함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방향에 대한 힌트 얻음

(일본측)

- 현재의 한일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발언과 발표
- 건설적인 아이디어 제시
- 솔직한 의견교환, 깊이 있는 의견 교환
-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한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많은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매우 참고가 되었음
-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3.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한국측)

-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장소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음
- 질의응답이 활발하지 않고 코디네이터 친분에 의존한 지정토론으로, 질문이 아닌 코멘트만 있었음

(일본측)

- 일본기업에 대한 강한 비난에 대해 좀 더 주장해야 할 것임

4. 주제발표 및 회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평가·의견」에 대해서

(한국측)

-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유익한 주제발표 및 논의 내용은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주제발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현실성있게 반영했으면 좋겠음
- 한일 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일 신산업무역회의가 회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체적인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함
- 금일 발표된 동서대 총장님의 발표내용은 매우 훌륭했으며, 공감하였음
- 양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요망됨
- **양국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많은 한일 교류단체(각 분야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발표자들의 준비가 충실했음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인적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 전체 토론이 의미있었고, 재미있었음
- 발표내용 및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특정 산업에 대한 발표도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임
- 차기 회의 주제를 결정 후, 조사연구한 후에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측)

- 고하리교수 발표는 매우 흥미 깊은 내용 이였음
- 한일 양국 경제인이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
- 논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 옹저버로 매스컴 대표와 정치가의 참석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 제안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임
-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좋았음
- 당면 과제와 문제점, 매스컴 및 정치 등 회의와는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한편 구체적인 다음의 액션플랜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
- 교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
- 한국측의 솔직한 의견과 사고를 알 수 있었음
- 현재의 상황 파악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액션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필요

첨부 5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대표 ①>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대표 ②>



<본회의 전경①>



<본회의 전경②>



<본회의 전경③>



<Reception : 인사말하는 오석송 한국측 চে어맨>



<Reception : 인사말하는 아소 일본측 চে어맨>



<마무리 폐회인사를 하는 서석송 부회장>



<Reception 전경>



<개회인사하는 오석송 한국측 চে어맨>



<개회인사하는 아소 일본측 চে어맨>



<제1세션 :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제1세션 : 모리야마 SJC 이사장>



<제2세션 :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제2세션 : 고하리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질의응답① :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질의응답② : 후지요시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질의응답③ : 기병태 히카리정보 회장>



<질의응답④ :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 대표>



<질의응답⑤ : 황호균 동해STF 부회장>



<질의응답⑥ : 니시나가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질의응답⑦ : 정준명 김안장법률사무소 고문>



<총괄발언하는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